



3면 "세만금 정상화 위해 항거할 것"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학년도 전북 수능 응시자 1만6805명

재학생 952명 ↓ 졸업생 550명 ↑

원서 접수 결과... 전국 대비 도내 수험생 비율 3.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재학생은 감소하고 졸업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지역 지원자는 1만6,805명으로 전년 대비 295명(1.73%) 줄었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원서접수 마감 결과 재학생은 1만 2,428명으로 지난해보다 962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은 3,848명, 검정고시 출신은 581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00명, 107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73.9% 졸업생은 22.9% 검정고시 출신은 3.2%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비율이 4.3% 증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성별로는 남자 8,640명(51.41%), 여자 8,169명(48.59%)으로, 남학생 응시자가 475명 더 많았다. 영역별 선택과목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 1만1,537명(68.7%), 언어와 매체 5,209명(31.0%)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이 약 2배 이상 많지만 지난해 대비 화법과 작문은 4.5% 감소하고, 언어와 매체는 4.5% 증가했다.

또 수학 영역은 미적분 8,484명(50.5%), 확률과통계 7,346명(43.7%), 기하 492명(2.9%)으로 과반의 지원자가 미적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 6,675명(99.2%)이 선택했다. 이어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7,133명(42.5%), 과학탐구 영역 8,295명(49.4%), 사회·과학탐구 영역 929명(5.5%), 직업탐구 영역 92명(0.6%)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282명(13.6%)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21% 늘었다. 한편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만4,588명으로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했고, 전국 대비 전북 지역 수험생 비율은 3.3%로 17개 시도 중 9위로 조사됐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시행 3년 차인 통합수능의 과목 선택 유불리에 대한 학습효과, 그리고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쉬운 수능 기대감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의 출제 방향 불확실성이 감소된 만큼, 남은 기간 자신의 학습 전략을 보완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식발식을 단행한 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성난 도민 목소리 대변

민주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의회 의원 8명, 기재부 앞에서 식발 투쟁 나서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위한 SOC 예산 완전 복원 촉구” 성명서 기재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식발 투쟁을 나섰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12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에 예산 복원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전 청사 앞에서 식발식을 가졌다. 이날 식발은 이병도 의원(전주), 김성수 의원(고창), 최형열 의원(전주 5), 권요안 의원(완주2), 김대중 의원(익산), 김정기 의원(부안), 박정희 의원(군산3), 전용태 의원(진안) 등 도

의원 8명과 함께 했다. 이들은 성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예산 폭거를 일삼는 정부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새만금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 “반드시 전북의 예산과 새만금 개발 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대응을 시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다”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SOC 예산 완전 복원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기재부 세종청사 앞 식발식 현장을 찾아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응원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당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소속 8명의 지역위원장 삭발식과 앞서 전북도의회 앞에서 14명의 도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연 바 있다. 이밖에도 도당은 향후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 여당의 전북도에 대한 예산폭력에 항의하는 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서 ‘아·태관광진흥기구 총회’ ... 15일까지

전주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주 라한호텔 등 전주 일원에서 제11차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광이 곧 경제다. 관광산업이 이끌어가는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11차 TPO총회는 개막식과 시장급 특별회의, 주제별 회의, 전체회의 등 공식행사와 더불어 관광로드쇼, 전

주 관광자원 시찰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관광분야 최대국제기구인 TPO 공동회장 도시로서 지난 2016년 TPO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제11차 TPO총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TPO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관광커넥트 도시 전주의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김익기 기자

‘하나의 가족’... 세계종교문화축제 개막

2023년 제15회 세계종교문화축제가 12일 오후 7시 전라감영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개신교 백남운 목사, 불교 일원스님, 천주교 김선태 주교 등 종교지도자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지도자 만남 및 불교 일원스님의 개막사전을 시작으로 축사 및 덕담, 종교 열

16일까지 전주 등서 진행
명상걷기·성지순례 등
린미당 대동한바당 등이 펼쳐졌다. 축제는 5일간 ‘하나의 가족(FAMILY PORTRAIT)’이라는 주제로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에서 진

행된다. 이번 축제는 종교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주 세계평화회의전당 익산 원불교중앙총부 김제 금산사 등에서 종교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종교별 명상걷기를

통한 힘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고 종교문화, 종교음식, 종교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종교명상걷기대회가 진행된다. 또한, 특별기획으로 종단별 청년들이 참여해 주제 토론 및 성지순례 활동을 펼치는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가 10월에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축제기간 동안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종교별 영화도 각 지역별로 상영한다. /김재훈 기자

IMSIL-GUN 임실군 축! 전주매일 창간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